**Global Operation** 김 에스더 **기도편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멀어지고 있다는 바람과 햇살을 느끼면서 가을이 어김없이 오고 있음으로 숨죽였던 7월의 사건과 군중들....... 이 땅의 현실과 영적인 상태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7:11) 하나님의 주권,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기도에 의탁합니다.

이곳은 희생절이 월요일부터라서 지난 주말부터 거의가 이번 주말까지 휴일인데 한국의 추석 명절과 겹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웃이 주차장 마당에 소 한 마리를 묶어 두어 밤중에 죽음을 앞둔 소 울음소리가 주는 분위기와 소를 잡아 고기를 나누느라 부산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단번에 드려진 희생이 죄에서 구원함을 믿지 않고, 해마다 짐승의 희생과 고기를 나누는 선행으로 구원에 가까워지려는 땅 끝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7월의 사건 이후에 공무원, 교사.......많은 해직자들로 인한 업무 공백 상태에서 거주증 신청홈페이지의 오류와 해마다 바뀌는 신청서와 등 우여곡절을 겪고 의료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개월을 연장 받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상황으로 몰려드는 난민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하는 신청자와 연장을 받아야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으로 접수되어 인터뷰 날짜가 4개월 뒤에 잡히기도 하는데, 저는 빨리 마무리되어 감사했습니다.

에이치 부인네는 8월에 남편의 운전 부주의로 막내딸과 함께 접촉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경미한 사고였지만 에이치 부인이 두통 후유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큰딸은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고 둘째딸은 치과가 점차 자리가 잡혀가고 막내딸은 전액 장학금으로 전기전자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이 예비한 마음 밭이 좋은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가 열매로 결실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방 곳곳에서 들려오는 폭탄테러 소식에 교제하던 사람들이 시내 중심가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만나는 것을 자제하자고 했던 여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식 수업과 지방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지방 사역들은 이 땅의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한국을 알리는 정부의 행사에 참여 할 기회가 주어져서 2명의 수강생 도우미들과 26일~30일까지의 일정으로 2개 도시에서 한식 세미나와 한식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와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 할 자료와 내용을 현지어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음식과 전체 인원이 버스로 이동 할 때 안전, 이 행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식 수업의 전용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지하의 창고와 현지인 직원을 위한 주방 공간에 공사가 시작되어 한식에 관련된 전시실과 주방이 10월 문화원 개원 행사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사용이 용이하게 되면 제자를 양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공적인 이메일에 문제가 생겨 주소록을 사용하지 못해서 연락처가 없는 동역자님들께는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편지에 기도제목으로 나누었던 안식년은 11월부터 3개월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기도가 열매로 볼 수 있는 계절이 되도록 역사하기를 기도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소식을 드립니다.

2016. 9. 14

김 에스더 드림

goturanesther@gmail.c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